

# Hot

## IIC China 2006을 가다

>> Hot Issue

IT-SoC협회는 올해에도 국내 10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여  
International IC China(IIC China) 2006에 참가하였다.



# IIC China 2006을 가다

중국 상하이 SHANGHAI MART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제11회 IIC China 2006이 개최되었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IC전문 전시회인 IIC China에 세계 10대 반도체기업 Samsung, Intel, Texas Instruments, Toshiba, STMicroelectronics, Infineon, Philips, Freescale 등 13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중국 및 해외 참관객에게 국제 수준의 IC와 솔루션을 선보였다.

임인영 IT-SoC협회 마케팅지원팀대리 (bei97@itsoc.or.kr)

## ★ 올해에도 디스플레이와 휴대기기용IC가 대세

이번 전시회에는 LCD TV,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휴대폰 및 무선 네트워킹 등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 부문의 신기술과 솔루션들이 전시되었다. 삼성전자는 자사 부스에 3개의 개별 칩 S5M8600 RF 튜너, S3C4F10 (베이스밴드 채널 디코더)과 S3C2442 (모바일 응용 프로세서)로 구성된 DVB-H 솔루션을 전시했다. Philips와 Renesas는 LCD TV용 솔루션을, Intel, Sigmatal, Freescale, Sharp 등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솔루션들을 전시했다. 더불어 TI, Infineon, Philips, Maxim 등 여러 칩 업체들이 최신 3G솔루션과 기기들을 중국 바이어에게 선보였다.

## ★ 한국관, 사전홍보부터 치밀하게 준비

IIC China 2006 한국관 참가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해외 유망 IT 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4개월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수행됐다. IT-SoC협회는 전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중국 현지 마케터와 유관기관, 매체를 통해서 전시회 참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한국 SoC기업의 국내 참가업체에 적합한 중국 바이어를 찾아 참가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 한국관, 참관객들로 북적여

한국관은 10개 업체 12개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개막 당시부터 연 이틀동안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국 바이어들은 모바일 멀티미디어칩, LDI, MP3P칩, 광마우스용 센서 등의 전시 제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관 부스는 전시회 유일의 국가관으로 밝고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중국 참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참가업체의 전시 효과를 높였다.

## ★ 전시회 성과와 참가업체 반응

국내 참가업체들은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136건의 상담과 80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으며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엠씨에스로직, 픽셀칩스, 애트랩 등은 18건,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업체가 고르게 계약을 맺었고 차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이 높아 실제 거래액은 150만 달러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 참가업체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전시회에 참가한 부리멀티미디어 강현구 실장은 "SoC 전문 전시회라서 의미가 있었고 타겟이 맞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해외에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전시회가 아니면 제품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김병초 과장은 "한국관 공동 부스를 이용함에 따라 방문객 유치가 원활하였으며 예상보다 많은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었다."며 한국관 참가에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



★ 한국관 둘러보기

(주) 동운인터내셔널 [www.dong-woon.co.kr](http://www.dong-woon.co.kr)

1987년 설립된 (주)동운인터내셔널은 반도체 유통 및 생산업체로 이번 전시회에는 USB 케이블을 통한 휴대폰과 PC간의 Data 송수신을 담당하는 USB Transceiver IC (DP168X Series), 고화소 카메라폰용 Auto Focus 지원 Motor Driver IC(ID970X Series), 고화소 카메라폰용 Zoom기능 지원 Motor Drive IC(ID9802), 카메라폰 내 Flash기능 지원 Power LED Drive IC(DW8700) 등을 전시하였다.

김혜정 과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에 대해 “우리와 같은 한국 펌리스 업체들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해 중국의 많은 휴대폰 업체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제품 상담을 진행했으며, 우리회사의 USB Transceiver IC와 AF Motor Driver IC가 이미 국내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일부 메이저급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관심을 표현했다.”라고 덧붙였다.

(주)동운인터내셔널은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 2004년에 이미 심천사무소를 설립했고, 현재 3개 업체를 정식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현재 구축된 대리점들을 활용하여 금년 내에 중국 1~5위권 휴대폰 메이저 업체에 자사 제품을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DP168X 시리즈]



[ID970X 시리즈]

(주) 렛스비전 [www.letsvision.com](http://www.letsvision.com)

JPEG, MPEG4, H.264 등의 비디오 코덱과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렛스비전은 지난해 이어 두번째 IIC China에 참가하여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인 MEDEO1100과 개발 단계에 있는 DMB멀티미디어 SoC인 MEDEO2000

을 출품하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김택중 과장은 “중국 바이어에게 당사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력있는 제조업체를 만나 새로운 거래선을 만들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면서 “한국관 공동 부스를 이용하니 참관객 유치가 원활하였으며 당사 MEDEO2000에 대한 중국바이어의 관심도 뜨거웠다. 아직은 개발단계라 실물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당사제품에 관심을



[MEDEO1100]

보인 바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렛스비전은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대리점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적합한 에이전트 만나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주) 모비솔 [www.mobisol.co.kr](http://www.mobisol.co.kr)

휴대정보기기용 입력장치 개발업체인 모비솔은 이번 전시회에서 Touch Point와 Touch Scroll을 전시하였다. Touch Point와 Touch Scroll은 핸드폰이나 휴대단말기에 사용하는 초소형 2차원 입력장치로서 조그 패드를 통한 포인팅과 스크롤 기능이 가능하고 4방향 키를 일체화하여 방향제어가 가능하며,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방향 및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설명서 없어도 즉석에서 사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이다.

정경운 전무는 “중국 바이어들이 당사 제품에 흥미를 갖고 있다. 유명 핸드폰제조업체 개발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와 엔지니어들과 제품화 가능성에 대해 상담했다.”고 하면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단독으로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협회의 지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모비솔은 이번 전시회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됐던 핸드폰 생산업체 및 반도체 유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Touch Point II]



**(주) 부리멀티미디어 www.booo-ree.com**

2004년 설립된 부리멀티미디어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칩 등을 설계 공급하는 회사로 이번 전시회에 8bit SoC인 BMC504와 개발중인 2D/3D 그래픽 엔진을 내장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인 BMP1000 FPGA 시스템을 출품하였다. BMP1000 FPGA 시스템은 강력한 3D 프로세싱 엔진을 내장하여 1초에 100만 개 이상의 트라이앵글을 표시할 수 있으며 H.264와 MPEG-4표준에 적합한 AV코덱도 가지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했던 임병훈 이사는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해보고자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BMP1000 FPGA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으며 제품 스펙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기뻐했다. 부리멀티미디어는 지난 해 11월 홍콩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 마케팅 채널 구축에 주력하면서 현지 기술지원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BMC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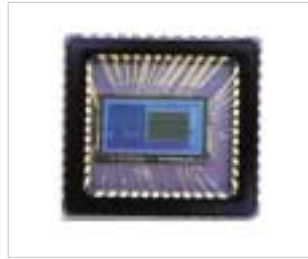


[BMP1000]

**셀로코(주) www.seloco.com**

셀로코는 이번 전시회에 Windows 기반의 IC 설계용 Tool인 MyChip Station Pro와 PC카메라를 위한 Single Chip 솔루션인 UbiCam1000 이외에도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과 DVR, Network Camera 등을 통합한 디지털 보안감시 솔루션을 출품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박수는 선임은 “MyCAD 대리점을 신규 발굴하고, 개발 막바지 단계인 UbiCam Series를 사전홍보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당사의 PC 카메라용 Single칩 및 보안솔루션 등에 중국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특히 USB PC 카메라용 영상처리칩은 현재 생산중인 자신들의 제품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PC카메라 생산업체도 있었다.”고 기뻐했다.

셀로코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참가했는데 지난 해에 방문했던 바이어가 올해도 셀로코 부스를 방문해 출품작에 대해 새로이 추가된 기능을 문의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보다 일정이 하루 줄었지만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많아 셀로코의 신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셀로코는 중국 대리점을 발굴해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한편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회사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연변대학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중국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UbiCam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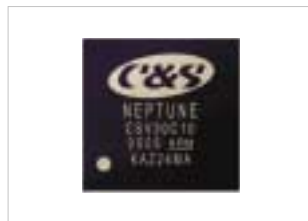


[Network Camera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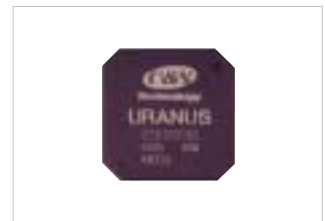
**(주) 씨앤에스테크놀로지 www.cnstec.com**

1993년 설립된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MoIP(인터넷영상전화기)와 멀티미디어 칩등을 개발, 생산하는 영상토탈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DMB전용 멀티미디어칩 넵툰과 솔루션을 출품하였다. 넵툰은 DMB 단말기에서 고화질, 고음질의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DMB전용 hardwired 멀티미디어 칩이다.

김병초 과장은 “아직은 미개척적인 중국에 우리 제품을 알리고 중국 DMB시장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하면서, “중국 제조사에서 우리 솔루션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으며 전시회 이틀동안 줄곧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협회 측에서 사전에 주요 바이어와 미팅을 주선해 줘서 구매력이 있는 업체와 실속있는 미팅을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실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열리는 관련전시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국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표준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하는 등 간접적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NEP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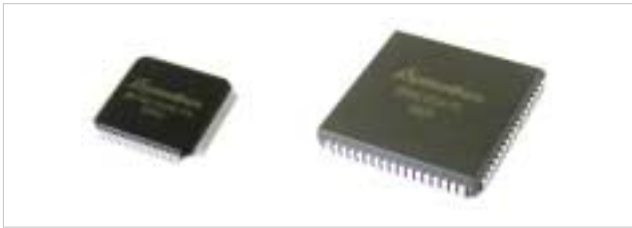


[URANUS]

**시스템베이스(주) www.sysbas.com**

QUAD UART IC와 PCI Target 콘트롤러를 전시한 시스템베이스는 세계 최초로 256byte UART를 개발하여 이미 유럽지역에 독점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UART는 CPU에서 전달되는 parallel data를 asynchronous serial data 형태로 바꾸어 외부 장치로 송신하고, 외부 장치로부터 수신된 asynchronous serial data를 parallel data로 변환시켜 CPU가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반도체이다. 시스템베이스 김기명대리는 “PCI 콘트롤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아니고 UART는 CPU에 기본 내장되어있는 추세여서 외장형

UART를 사용하는 시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시회 현장에서 우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중국 대리점을 두개 발굴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스템베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굴한 중국 대리점을 통해 당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SB16C1054]

#### (주) 엠씨에스로직 [www.mcslogic.com](http://www.mcslogic.com)

1997년 설립된 엠씨에스로직은 디지털오디오칩과 음성재생용 칩 등을 설계·공급하는 회사로 이번 전시회에 디지털오디오칩과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Bluetooth MP3P, VoIP MP3P 솔루션을 전시하였다. 엠씨에스로직은 지난해에는 중국보천그룹과 계약을 맺는 등 큰 성과를 이뤘으며 올해에도 MPD3P제조업체와 멀티미디어 휴대폰 업체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전시회 기간 내내 주요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다.

서성교 과장은 “IIC China를 통해 기존 고객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해외 전시회는 비용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매우 힘들다. 앞으로 협회에서 상해전시회뿐만 아니라 심천과 북경까지 지원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엠씨에스로직은 지난 2년간 대중국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에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경에 중국현지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5월경 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심천에 기술 지원을 위한 MCS Logic (SZ)Inc.를 개설했으며, 홍콩에는 영업을 위한 MCS logic HK Ltd.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오디오칩 - MLC 3890]



[디지털오디오칩 - MLC 3590]

#### (주) 애트랩 [www.atlab.co.kr](http://www.atlab.co.kr)

2000년 설립된 애트랩은 광마우스용 센서와 디지털 Touch 센서 등을 개발·생산하는 회사로 이번 전시회에는 Touch 센서칩과 최근 개발이 완

료된 GMDX(Gigabit Multimedia Data express)를 전시했다. GMDX는 영상·음성 등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손실없이 수십 미터까지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이다. 이번 IIC China에 참가한 김도희 부장은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바이어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중국 내 대리점을 희망하는 디스트리뷰터들도 많이 만났으며 이들과 상담을 통하여 제품 판매와 유통망 확보가 용이해질 것 같다. 또한 제품 응용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애트랩은 앞으로 대리점 및 협력사를 최대한 활용해 판매망을 강화하고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제품인지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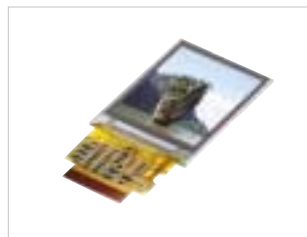
[광마우스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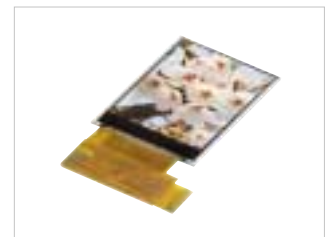
[디지털 Touch 센서]

#### (주) 픽셀칩스 [www.pixelchips.com](http://www.pixelchips.com)

2000년 설립된 픽셀칩스는 TFT LCD driver IC 제품 개발, 생산업체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제품명 PXC3002S, PXC3007S, PXC3100 등 5개 종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픽셀칩스는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왔으며 이번 전시회 참가는 지난 1년간의 중국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마케팅 담당자로 전시회에 참여했던 노희연 대리는 “현장에서 당사 제품에 관심을 갖는 관람객이 아주 많았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보다 디스트리뷰터의 방문이 많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협회에서 준비해준 1:1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실제 구매 고객과도 상담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간략한 소감을 말했다. 픽셀칩스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모듈업체가 많은 심천과 핸드폰 디자인하우스가 많은 상해를 집중 공략하여 기반을 다진 후 올해 상반기 중 심천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XC3009]



[PXC3109]